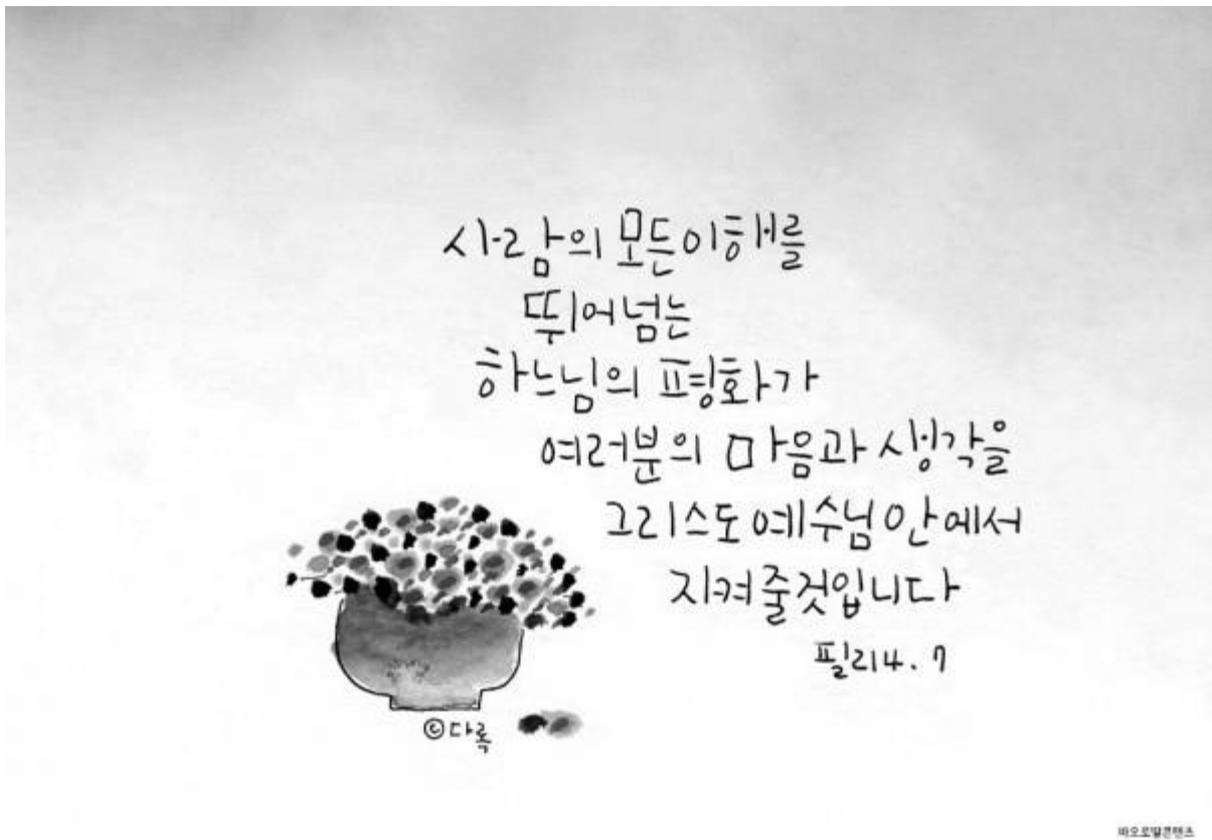


만남

2022년 1월
통권 204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마산교구장 사목교서	-----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5
전례의 숲	-----	8
보물 창고	-----	11
영적 상담	-----	15
축일을 축하합니다	-----	17
이 달의 전례	-----	18
본당 살림살이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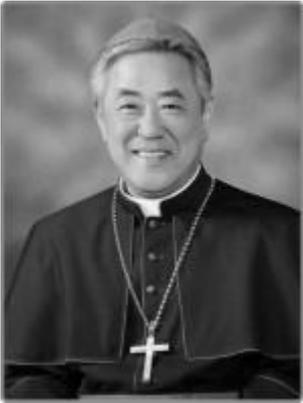
《교황님의 1월 기도지향》

❖ 참된 형제애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 받는 모든 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나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시다.



* 2022년 마산교구장 사목교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간 별고 없으셨지요? 코로나를 2년이나 겪다 보니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는데, 이제는 치아가 거의 없으신 할머니 입에서도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술술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몸에는 이가, 뱃속에는 회충이 득실거렸던 ‘위드 벌거지(벌레)’ 시대였습니다. 코로나 사정이 아직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교회는 대림절로 다시금 신앙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난해는 「나해」였기에 주일 복음이 주로 두 번째 복음서인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다해」로 세 번째 복음서인 루카 복음을 중심으로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 버렸지만, 꼭 다시 새겨야 할 지난해 2021년은 한국천주교회가 첫 사제들인 김대건, 최양업 두 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희년으로 선포한 한 해였습니다. 이 희년 동안 우리는 특별히 죽음이 설쳐대는 순교 당시의 기막힌 처지 속에서도 떳떳하고 의연하게 복음을 전하신 두 분의 모습을 기리고 그 삶을 본받아 실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들의 노력은 너무나 미미하였고, 희년의 정신을 살아감에 있어 누구보다도 크게 동참했어야 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옆드려 기도하는 - “영적 다가섬”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고 핑계를 댈 수만은 없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농부와 농사일을 두고 자주 비유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우리 교회를 논밭에 한 번 비유해 봅니다. 무릇 소출이 잘 되려면 농부가 열심히 논밭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름진 논바닥이 되고 풍부한 밭떼기가 되어 거기로부터 작물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정도 이와 같음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사를 위시한 교회 생활 전반이 참으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신자분들의 신앙 상태가 더 열악해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본당 신부님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많은 한계를 토로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천주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를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것도 어느 누가 전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내적 갈증이 복음을 들여오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한 분 없는 가운데서도 순교의 칼을 기꺼이 받아 가며 들불처럼 살아남아, 조선 천주교회는 진리에 목마른 우리 백성에게 영적 생명수가 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목숨을 바쳤던 우리 신앙 선조께 다소 미안하긴 하지만 그저 지금의 경제적 안락함이 마음에 더 와닿고 우선하는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주교가 원망스럽기까지 하신지요? 사랑하고도 사랑하는 우리 신부님들께도 묻습니다. 본당 신자들이 하느님 사랑을 담뱃 받고 신앙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투신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렇게 나름대로 애써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체념하며 그저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젊은 신부 때는 제가 노력한 만큼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보여 줄 게 별로 없다는 사실과 또 그럴수록 죄스러운 내 속 모습이 드러날 뿐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자신의 멋진 장기와 수단을 보여 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혹은 약점을 끌어안고 깊이 묵상하여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초등학교 학예회 때 무대 위에 올라가 선생님을 따라 노래하며 춤추는 1학년 아이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을 따라 손을 놀리고 발을 굴러보지만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하고 빈번히 틀립니다. 그래도 선생님을 따라 해 보려고 이래저래 움직이는 모습이 밑에서 보고 있는 부모의 눈에는 한없이 아름답고 장하기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부족한 주교와 우리 신부님들을 보는 눈도 그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1-11)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46장 “우리는 주의 사랑을”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저희가 이 신비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 ❖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처럼 기뻐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 1 그때에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 2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 3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 4 예수님께서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 5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 6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 7 예수님께서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 8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 2 8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9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10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11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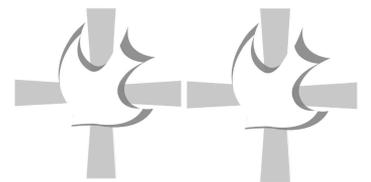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
 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살아가는 동안 작은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잔치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 만남은 깨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너에
 대한 나의 깨어 있음, 너를 나의 영원한 반려자로 맞아들이려는 전적인 개방성,
 바로 이것이 혼인이 가지는 매력입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어쩌면 부수적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
 주가 채워지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입니다. 그렇기에 ‘그것
 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다소 차갑게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덕택에 복음의 이야기는 당신과 ‘상관있는’ 그 무엇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모님께서 일꾼들을 불러들이고,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린 움직임이고, 과방장은 신랑을 불러 좋은 포도주에 대해 만족해하며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표징이었습니다. 제자들에 이르러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상관없다며 거리를 두신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부족한 포도주를 볼 수 있는 성모님,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라 나서는 일꾼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제자들, 이들한테서 우리는 혼인의 매력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사소한 것에도 깨어 있어 제대로 볼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끝이곧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르고 믿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카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성모님처럼, 일꾼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내 눈앞에 펼쳐진 사소한 모든 것에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한 번 두 번 ‘내 생각은 이것이다.’라고 입을 떼어놓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는 혼인 잔치의 풍성함으로 조금씩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46장 “우리는 주의 사랑을”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미사 주례와 거행 기술(심규재 실베스텔 신부님)

어떤 젊은 신부가 이따금 미사 시간에 늦고, 더구나 혼자서는 시간을 바꾸어 미사를 봉헌하는 것을 알고 뉘우쳤습니다. “부제 때까지는 내가 미사 시간에 맞추었다. 언제나 미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셨다. 그러나 서품을 받고 나서는 주님께서 내 시간에 맞추어 오시게 되었다. 내가 주인이 되었구나!”

실제로 신자들이 모이고 준비가 끝나도 사제가 없으면 미사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사에는 사제 외에도 많은 이들이 수고를 합니다. 시종과 독서자, 시편 담당과 성가대(지휘자, 선창, 오르간 연주자 포함), 해설자, 안내 담당, 헌금 담당, 장식 담당과 제의실 담당, 전례 담당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만 미사를 거행하려면 사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된 사제뿐’이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단순히 빵 나눔으로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지역 공동체의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제사를 새롭게 하는 성사입니다. 비록 모든 신자들이 세례 성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성찬의 제사를 봉헌하지만 오로지 사제만이 서품 성사의 힘으로 성찬의 성사를 이루고 백성 전체의 이름으로 제사를 바칠 수 있습니다. 서품을 받은 사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제는 교회법으로 금지를 당하지 않고, 다른 법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미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다른 법규범, 특히 전례 규범을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교회법에는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가 지켜야 할 규범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제는 신자들이 효과를 얻도록 합당한 방식으로 미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미사를 마친 뒤에는 감사의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나아가 신자들이 미사에 온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가 인간 삶의 중요한 문제들과 현실의 중요한 사건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게 해야 합니다.

사제는 원칙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미사 거행할 수 없어

미사 거행과 관련하여 사제들에게 해당되는 다른 규정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제는 날마다 미사를 거행하라고 간곡하게 권고를 받습니다. 이 권고는 신자들과 함께 거행할 수 없는 미사에도 해당됩니다. 미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며, 단순한 영성체로는 얻을 수 없는 풍요로운 열매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권고는 신자들이 참여하는 미사가 정상이며, 신자들은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다른 원칙들에 비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사제는 신자의 지향에 따라(보통, 예물을 봉헌하지만 예물 없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미사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사는 살아 있거나 죽은 사람 모든 이를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쉬고 있거나 성사 참여에 장애가 있는 가톨릭 신자는 물론이고,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미사가 공적인 행사인 때에는 물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합니다. 한편, 여러 가지 기원을 위해서나 신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제는 원칙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미사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수도회 장상은 안 된다.) 드릴 수 있습니다. 교구장은 사목의 이유가 있을 때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를 세 번까지 드리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법에 따라 모든 사제는 특별한 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어느 날이나 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인으로 미사를 거행할 수 있지만 공동 집전이 있는 성당이나 경당에서 같은

시간에는 할 수 없고,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와 부활 성야 미사도 따로 개인으로 봉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교회와 친교가 없는, 다시 말하여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나 공동체의 사제나 성직자들과 공동 집전을 할 수 없습니다.

미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회중 전체, 특히 사제는 “거행 기술”(ars celebrandi)을 익혀야 합니다. 전례에 관련된 교회 문헌에 요즈음 이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2007년에 나온 교황님의 권고 “사랑의 성사”도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행 기술은 “올바른 거행 방법”이란 뜻으로,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과 예식이 가리키는 뜻에 경건하게 마음을 맞추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동작을 취하고 말을 발설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올바른 거행 기술은 신자들이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며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충실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제는 미사의 주인이 아니라 미사의 봉사자입니다. 신자들이 사제 자신이 아니라 제대를 통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미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연극의 주인공과 미사의 주례 사이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는 작품의 동작, 옷, 언어, 다른 소통 수단으로 작품의 인물을 표현하면서 관중의 주의를 끕니다. 한마디로 연기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례는 나타내려는 분을 흠송하는 신앙인입니다. 그에게 최고의 연기력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중의 박수가 아니라 신자들의 구원입니다. 당연히 사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성향을 드러내기 위하여 미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사는 그 본성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거행 방법의 첫걸음은 정해진 동작과 말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당 건축과 성화와 성상, 말과 노래와 침묵, 몸의 자세와 움직임, 전례 의복과 색깔과 비품과 같이 미사에 사용되는 여러 표지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예식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일찍이 성 베네딕토는 “마음을 목소리에 맞추어” 시편을 바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 사이의 일치하는 기도가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동작을 할 때에도 이와 똑같은 내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의 일치! 그리고 올바른 거행 기술은 전례규범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법과 전례 규범, 전례서들을 잘 익혀야 합니다. 미사 경본, 특히 미사의 신학과 구조, 거행의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통틀어 싣고 있는 “미사경본 총지침”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언제나 같아 보이지만 늘 다른

사제는 미사에서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이 때문에 제의를 갖춰 입고 품위와 영예를 받습니다. 입당할 때는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강론을 할 때에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예물을 축성하여 나눠줄 때에는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사를 드릴 때 거의 같은 말과 동작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성의 없이 기계적으로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흐르는 물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같아 보이지만 늘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지만 늘 새로운 분이십니다. 성경도 그렇고 미사도 그렇습니다.



♥ 세상과 교회의 경계에서 찾는 '신앙 감각'(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님)

세상을 읽는 '감각(sense)'이 있습니다. 운동이나 예술 영역에 타고난 감각, 또는 숙련된 감각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다양한 표징을 읽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감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보통 '센스(sense) 있는 사람'이란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센스 없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일어나는 일의 정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언제나 내가 아닌 타자와 소통하고 교감하여 일깨워지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제 생활 15년 만에 처음으로 본당 신부가 된 후 신자들과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 교감과 소통입니다. 신자들은 본당 신부가 새로 부임하면 신부의 성향과 관심사, 전례와 사목 방향에 주목합니다.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 강론 내용,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신부가 교회와 세상을 이해하는 감각을 판단하곤 합니다. 본당 신부가 된 후 가장 큰 변화는 혼자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신자들과 눈길을 마주치고 손을 맞잡으면서 신자들의 관심과 교회 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지낼 때 다른 신부님들과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신학생들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운동하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며 가졌던 감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인 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소통해 왔는지에 따라, 그리고 나의 인격을 성장시켜 주는 좋은 멘토와 친구,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책과 조언, 삶의 아픔과 고뇌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이해하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과 얼마나 소통하고 교감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읽는 감각도 달라집니다. 외톨이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지 않고, 관계 속에서 자아를 의식하며 타인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 놓는 자세는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센스를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처럼 지식이나 감성만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소통하고 관계 맺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공존지수(NQ: network quotient)'가 오늘날 중요한 삶의 척도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감각은 '이기적 감각'으로 전락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동물적 감각'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인간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영적 감각,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영적 소통 능력과 감수성은 퇴락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무감각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소통의 부재나 이기적 탐욕으로 인한 소유와 경쟁의 세속적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질수록, 사회는 세상의 표징 속에 숨겨진 영원하고 초월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세속화 현상’을 보입니다.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는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가 상대화하고 세속화한 문화에 밀려 약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해’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되찾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흠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창세 2,7)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지만, 동시에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안에 담겨진 하느님 생명의 숨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와 함께 호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감각은 우리 영혼의 고향, 곧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느님을 믿고 그분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감각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느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자신의 기초를 세우는 것,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느님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의 숨을 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 곧 영의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온 이유와 살아 갈 이유를 찾게 해 주는 영적 감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감각을 세상과 교회의 경계에서 발견하고 성장시켜 나갑니다. 본당 신부가 되고 나서 깨달은 점 가운데 하나는 누구에게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제의 삶이 아니라, 내 생각에 반대하고 내 행동과 말을 구설수에 올린 이들과, 나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통해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세상을 읽는 감각을 새롭게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드러난 참된 하느님의 표징, 즉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거룩함과 숭고함을, 가난과 억압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을, 죄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정의가 꽃피도록 헌신하는 아



름다움을 식별할 영적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속된 세상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하느님 구원의 아름다운 드라마에 감동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속화한 세상에서 신앙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초대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교회의 경계에서 하느님을 향하고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진리의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 감각 (sensus fidei)’의 은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신앙 감각은 우리의 감각이 신앙으로 정화되고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갖고 살 수 있게 하는 ‘카리스마(은사)’입니다. 신앙 감각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파견된 교회와 세상에서 하느님을 찾는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이 세상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신앙을 문화생활의 일부로 여깁니다. 교회를 떠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데도 제도권 교회에 몸을 담는 일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교회 없이 자신만의 신앙에 안주하는 이가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면 사업과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성직자와 수도자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믿음 전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느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소비와 향락의 문화가 판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느님께서 밥 먹여주시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믿음에 모든 것을 거는 극단적 선택도 생깁니다.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종교에 몰두하거나, 자기 주변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사 시간에 혼자 성체조배를 하고, 강론 시간에는 주보를 펴거나 묵주 기도를 하며, 신자들과 친교를 맺기가 싫어 미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제보다 먼저 퇴장하고, 행여 구역과 반모임에 나오라는 말을 들으면 손사래를 칩니다. 그야말로 ‘선택적 신앙’, ‘카페테리아 신앙’이 대세가 된 모양새입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라 신자들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느님과 교회에 투신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은 엄연히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와 악이 판치는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오셔서 육(肉)을 취하고 사람이 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대속의 죽음으로 세상을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꿔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1)을 드러내는 표징과 도구가 바로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숨겨진 하느님의 표징과 흔적을 찾으며 자신을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이 되게 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서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신앙이 성장하는 자리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인 하느님 백성의 교회는 하느님을 향한 ‘초월적 갈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죄와 속됨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창세 1,10)고 하셨던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비뚤어진 감각을 새롭게 정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적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격정보다 먼저 성호경을 긋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일. 잠들 때 감사 기도를 바치고, 공공장소에서 부끄러움 없이 식사 전후에 성호를 긋고 기도하며,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1테살 5,16-18 참조). 의무가 아닌 은총의 미사에 참석하여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며, 성체 앞에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 주일 미사 참례를 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하느님을 멀리한 모든 삶의 모순과 사랑하지 않은 죄를 고백할 줄 알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일. 성직자와 수도자의 인간적 결함을 신앙의 눈으로 덮어 주고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일 등.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의 감각을 가지고 기쁘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교회의 경계 위에 선다는 것은 세상 밖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맹신과 다릅니다.

가톨릭 신앙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요한 3,16) 하신 하느님의 보편된 사랑에 뿌리를 둡니다. 이 보편성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이야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를, 불신과 미움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하느님께 향하는 삶이 되도록 이끕니다.



질문

오랜 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잘 낫지 않는 병에 시달리다 보니 마음이 예민해져서 식구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짜증을 자꾸 내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자살 충동이 올라와 깜짝 놀라곤 합니다. 마음이 우울감에 뒤덮이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도 안 만나고 종일 방안에서 우울하게 보내는 날들이 많습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형제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런 병고를 치르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죽고 싶은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울감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한참을 더 살아야 한다는 가정 하에 생기는 것임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사람은 자기 앞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데도 우리는 앞으로 한참을 더 살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그 날들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곤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4)

인생이 장구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루살이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성을 묵상하면 지금의 괴로움이 덜어지는 '치유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크니 힘든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소리 내어 나의 힘겨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방법을 일명 '주정뱅이 기도'라고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횡설수설하는데 그런 말들이 마음 안의 노폐물을 치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자세로 경직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느님과 성모님께 하소연도 하고 화도 내고 하면서 마음을 푸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걸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울감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것도 골방에 처박혀 있을 때 가장 극성맛게 괴롭습니다. 그런 때는 박차고 밖에 나가 걸어야 합니다. 묵주를 들고 걸으면 금상첨화이고요.

우리의 신체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심리적 상태도 건강해지고 행복감이 오는데, 걷는 것이야말로 인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 정도 걸어야 하느냐면 졸릴 때까지 걸어보길 바랍니다.

다음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우울한 분들은 이상하게도 맑고 좋은 날을 싫어하고 우중충한 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깥세상에 투



사해 그런 것인데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세상이 우울하고 슬퍼 보여서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아이들과 동반자살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장래가 괴롭고 힘들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자신이 거두어가는 것이 엄마의 도리라 하고 여기는 위험한 생각

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염세주의에 빠져 노상 우울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런 위험성이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증상을 없애는 방법은 뜻밖에 간단합니다. ‘해바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햇볕을 쬐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위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기능은 햇빛이 마음 안의 곰팡이 같은 우울감을 퇴치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우울한 감정에 시달리곤 하는데 그런 때 따가운 자외선에 온몸을 30분 정도 쬐이면 아무 노력 없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체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정오께 30분 정도 해바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해가 사람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성탄절이 태양신의 축일이고 성모님을 해와 같이 빛나는 분이라고 칭송하는지도 모릅니다.

우울감은 사람을 소진하고 마음을 퇴행하게 합니다. 잘 치료하셔서 새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 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일	엘리사벳 앤 시튼	김산	28일	카롤리네	김계희
21일	아네스	유곡지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백정선
		김잔디			
27일	안젤라 메리치	정진아	31일	요한 보스코	강석길
		김혜원			
		정인실			
		정선미			
전우연					

❖ 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리아	이복심(B) 신유민(H)	19일	마리오	김형철(O)
5일	시메온	김석주(H)	21일	아네스	강나래(H)
					정순자(H)
8일	지그리드	Giersberg Sigrid(O)	27일	안젤라	김혜경(O)
					이인영(B)
17일	안토니오	문철주(H)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김영희(H)
18일	크리스티나	김미영(O)			고광완(B)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 1월 성가번호 ❖

1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1일	239	332	503	44
2일	487	215	498	100
9일	481(2,3절)	213	169	1
16일	48	214	180	400
23일	329	342	187	61
30일	31	513	46	41

❖ 1월 전례 봉사 ❖

1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1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X
2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드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9일	최승진(바오로) 신지혜(체칠리아)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X
16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3일	최성자(벨라데타) 김매자(베로니카)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X
30일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이순자(마리아) 권지연(안드레아)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X



♥ 12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12월20일 기준)

강신행, 김경미, 강순행, 서세원, 우동천, 육종인, 윤석순, 이정수, 정마리아, 정명옥, 최순남, 영희 Eggerstedt, 최장용, 한말조, 심동근,

❁ 계좌 입금(12월 10일 기준)

권말숙, 강일남, 김대현, 김동수, 김부남, 허선애, 김유석, 김원자, 김치수, 김진호, 김효정, 남궁춘배, 박종래, 배성우, 백정선, 손수희, 송문규, 이경규, 이공종, 이명원, 이영원, 김순임, 김정숙 Eillinghof, 이성원, 이석우, 이철우, 오옥수 Ranitsch, 정정숙, 최성자, 최종금, 최현봉, 최아나벨, 허두옥, 허길조, 허채열, 현영애,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2월 20일 자 통장 잔액은 23.764,63 유로입니다.

☞ 본당 50주년 행사에 소요된 금액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수입은 총 2,505유로였습니다. 지방공동체의 협조가 700유로, 한인회 및 한인회장 200유로, 그리고 본당 신자를 통한 협조가 1,605유로였습니다.
2. 지출은 50주년 기념 선물인 수건 250장 2,716,18유로였으며, 도시락 130개 1,870유로, 교황님 축복장이 2,247유로, 청년 합창단 지원 1,700유로, 감사패 375유로, 기도문 복사비 255,70유로, 본당 50주년 기념 책자 비용이 1,735,14유로, 그리고 수고하신 청년들(책자 편집, 로고 디자인, 기념곡 봉헌)을 위한 지원금 1,000유로, 함부르크 대교구 기부금 5,000유로, 마산교구 이주 사목 기부금 5,000유로, 손님 신부님 교통비 200유로, 함부르크 대주교님과 신부님들 선물비 97,15유로, 행사준비 간식 74,60유로, 우편료 7,49유로 이렇게 모두 합계 22,228,26유로가 지출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본당신부님께 문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월 1일 토요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평화의 날) 미사는 15시 만 남성당 강당에서 봉헌합니다. 미사 후 떡국 나눔은 없습니다.
2. 1월 2일 일요일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는 15시 예수 성심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이틀 연속 미사가 봉헌되지만 장소는 다릅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3. 1월에도 일체의 모임은 없으며 미사 후 커피 나눔도 없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1월 1일이 토요일이지만 함부르크에서 미사가 봉헌되기 때문에 지방공동체 미사는 한 주간 뒤로 미뤄서 봉헌합니다. 다시 말해서 브레멘 공동체는 둘째 주 토요일에, 오스나브뤼크 공동체는 셋째 주 토요일, 그리고 하노버 공동체는 넷째 주 토요일에 미사가 봉헌됩니다. 미사 후 나눔은 없습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 협의회		매일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부회장	
				부회장	
				전례부장	
				총무	
주일학교		매일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일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매일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가나(마르가리타)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일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신지혜(체칠리아)		
		부회장			
요셉, 마리아회	매일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1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15:00 미사(만남 성당 강당)	
2	일	주님 공현 대축일		
3	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4	화			
5	수			
6	목			
7	금			
8	토			브레멘 공동체
9	일	주님 세례 축일		
10	월	연중 제1주일 월요일		
11	화			
12	수			
13	목			
14	금			
15	토			오스나브뤼크
16	일	연중 제2주일		
17	월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18	화			일치 주간
19	수			
20	목			
21	금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		
22	토			하노버 공동체
23	일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24	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25	화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26	수	성 디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27	목			
28	금	성 토마스 아퀴나스 주교 학자 기념일		
29	토			
30	일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31	월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